

광주시 주관 NGO 사업실적평가



## 월드컵과 사람들

■ 자전거 여행가 차 백 성 씨, 브뤼셀서 스위스전 필승 기원

## '고려인교류협력회' 최우수단체 선정

"지난 2000년 환경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연해주를 찾았다가 고려인 정착촌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최하위 국빈층으로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동포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고려인문화농업교류협력회 오채선(70·사진) 회장,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가 최근 올해 광주시 주관 NGO사업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오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9시간 거리에 있는 탈레네스크 고려인 시범정착촌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협력회는 '한 많은 우리 동포 고려인들을 돋는 비영리단체'이다. 정기후원회원 120여명과 수시후원회원 150여명 등 3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친환경 농법에 관심이 많았던 오씨는 고려인들에게 유기농법을 가르쳤고, 협력회



에서는 소와 돼지, 병아리 등 가축을 지원했다. 지난 해에는 돼지 새끼 28마리와 트랙터 1대를 보냈다.

오 회장의 올해 목표는 농산물 판매용 차량 2대를 지원하는 것과 주민들에게 한글·도덕·수지 침·이미용 교육을 하는 것이다.

4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던 오 회장은 99년 영암 신복전자공고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다. 이후에는 장흥군 유치면에서 '신선의 집'을 운영하며 무의탁 노인 50여명을 돌봤고 장흥에서 친환경농법을 연구하는 '돌나라 한농복구회' 활동을 해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광주시 과학전람회 경진대회' 서동현·강혜윤조 최고상

지난 12~13일 열린 '제 20회 광주시 과학전람회 경진대회'에서 백일초등학교 5학년 서동현·강혜윤조(지도교사 장유정)가 출품한 '봉선화 꽂투리는 왜 안 쪽으로 오므라들며 터질까?'가 최고상을 차지했다.



&lt;장유정 교사&gt;

&lt;서동현군&gt;

&lt;강혜윤양&gt;

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워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업무에 두고 탐구를 진행했다"며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잘 따라와준 아이들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대회는 물리·화학·동물·식물·지구과학·농림수산·환경 등 7개 부문, 24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18점은 오는 8월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

## '접시꽃 당신' 도종환 시인 24일 광주 온다



'접시꽃 당신'의 시인 도종환이 광주를 찾는다. 도시인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영상예술센터(옛 KBS 광주방송총국 자리) 영상관에서 열리는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의 포엠콘서트 초대손님으로 참석,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부드러운 속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쓸쓸한 노래' '어떤 마을' '아름다운 길' '동백 피는 날' 등 도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붙인다. 양한 시노래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11-9439-8209. /김미은기자 mekim@

## 박영희 주부교실 광주시지부장 23~24일 '부부행복' 행사



복 도와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 내방

▲김영록씨(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족

▲최정신(대창운수 전무이사)씨 장남 철호군 순일규씨 장녀 시운양 =24일(토) 오후 1시 오피라하우스 1층 오피라 특설.

▲임우순(세무사)씨 장남 성규군 서길석씨 2녀 영순양=24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강년(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장수사업소장)씨 차남 도현군 박점동씨 장녀 나영양=25일(일) 오후 1시 명성예식장 특설.

##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장폭력상담소 무료상담=기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1366, nam939@dreamwiz.com

## 동장·동문화

▲정을 호남고 동문화=22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011-9609-6780

▲제광 벌남 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모임=23일(금) 오후 7시 감나무 식당. 266-1823

▲광주 남중(무진중) 21회 동창회

## (회장 오세종)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30분 무진장 해물탕. 375-3331

▲복성중 제 10회 동창회(회장 선정식) 월례회=24일(토) 오후 7시 대경. 523-4992

▲경진계산초교 제 14회 동창회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동우회관. 351-3392

## 모임

▲(사)광주시 실내건축협의회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 협의회 사무실. 430-1800

▲국제로타리3710지구 남광주로 티클럽 '2006~2007년도 신·구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26일(월)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

오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 향우회

▲재광 봉황 향우회(회장 서한종)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동우회관. 351-3392

##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여성이화회(회장 보희) 월례회=22일(목) 오전 11시 광주전남 도지원 회의실 225-5631

▲의성김씨 광주전남 종친회 운영위원회=24일(토) 낮 12시 신성식당. 232-0760

## 모집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

강생 모집=여성이며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청작곡 활성화를 위한 특별 기획 공연 등 차기 작품 참여자 모집. 20세 이상으로 배우·기획·연출 분야. 7월 9일까지. 문의 430-525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인명구조원 일반·강사과정 교육생 모집=만 18세 이상 기본영법 200m 가능자. 접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문의 521-0545.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죽구회 회원 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

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종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립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페이지·카페·웹사이트·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문의 521-0545.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페이지·카페·웹사이트·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문의 521-0545.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페이지·카페·웹사이트·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문의 521-0545.

## 넓고 편안한

## 무등장례식장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호전) 대표:(062) 515-4488

지하철 쟁반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뜨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납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 부음

▲현원갑씨 별세 광식·우식·승식 씨 부친상=발인 23일(금)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250-4405



사의 심정으로 달려왔다"며 '필승의 깃발'을 전달했다.

2006km 깨닫는 봄드림 4강 개최

나플레옹의 경전인 워터루 벌판을 직접 달리고 싶어 브뤼셀을 찾았다는 차 씨는 네덜란드를 거쳐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 “알프스 넘었으니 스위스 이길 것”

“알프스를 넘어 온 국민의 성원을 태극전사들에게 전 한마음 이번 스위스전에서도 무조건 이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3일 토고와의 결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에게 필승을 기원하는 대한축구협회 깃발을 전한 자전거 여행자 백성씨(사진 오른쪽)가 20일 유럽의 수도로 불리는 브뤼셀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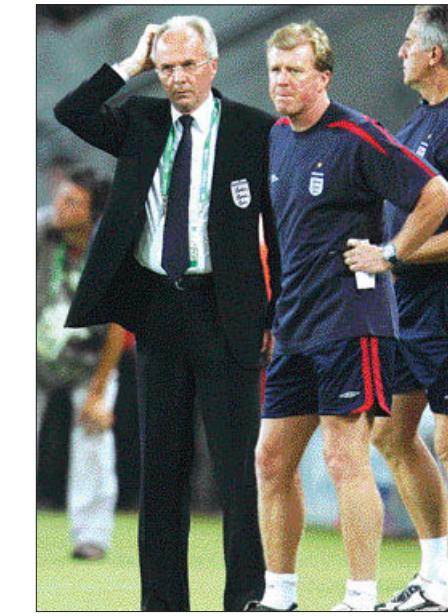
‘한국에서 알프스 넘어 독일까지’

“눈보라가 휘날리는 알프스 봄우리를 넘을 때는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성원이 선수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 걱정

정도였다”는 차 씨는 “죽을 고비도 넘기며 막상 스위스의 알프스 구간(인터라켄-루체른)을 넘고 보니 특히 스위스는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스위스전 필승을 기원했다.

“선수들도 온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힘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차 씨는 지난 4월 28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태극전사들에게 필승을 기원하기 위한 ‘유럽대륙 2천6km 자전거 장정’을 시작했다. 이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을 거쳐 토고전을 앞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4일만에 입성한 차 씨는 “마리온 전투의 승전보를 전한 그리스 전



## 끝나지 않은 바이킹의 저주...

## 에릭슨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고국 스웨덴을 상대로 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 스벤 고란 에릭슨(사진 왼쪽) 감독 심경이 복잡하다.

한마디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우선 에릭슨 감독은 잉글랜드가 기대대로 B조 1위를 차지하면서 무난하게 조별리그를 마쳤고 덕분에 16강전에서 A조 1위 독일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승점 7점으로 조1위에 오른 잉글랜드는 그나마 부담이 덜한 애파드로와 8강 진출을 다룬게 됐다.

게다가 이날 경기에서 에릭슨 감독은 대표팀 합류조차 불투명했던 간판 골잡이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빠른 회복 세까지 확인했다.

그렇지만 에릭슨 감독은 근심거리도 동시에 얻었다.

잉글랜드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바이킹의 저주’